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창업지원 위한 인큐베이터 구축 규방공예 · 퀼트 등 자격증 취득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백철규)은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익산-전주 지자체 연계로 희망드림 새(new) 일(job)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익산과 전주가 섬유패션산업을 지자체 간 연계 추진하여 비경제활동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꼭 맞는 사업으로 특히, 경력단절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ECO융합연에서는 섬유봉제 교육과정을 통해 섬유봉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토탈공예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이나 공예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ECO융합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봉제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친환경섬유신소재연구센터 내에 봉제교육장과 창업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구축했다.

교육장에는 본봉, 오바록 등 교육용 봉제기를 구축했고 인큐베이터 공간에는 자메스 등 특수봉제기를 구축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터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사업의 성과로 섬유봉제 전문기능인력 양성과정, 한류패션(한복, 침선, 퀼트) 전문기능인력 양성과정, 토탈공예 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 총 206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또한, 자격증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교육생 52명이 규방공예, 토탈공예, 퀼트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희망드림 새 일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교육생의 취업연계 뿐만 아니라 교육생을 중심으로 판매전시회를 추진하여 인사동, YWCA 바자회를 여는 등 창업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자체 연계로 익산 토탈공예 협동조합(토다토다), 전주 한류패션 협동조합(귀한손길, 바늘소리)을 구성하여 전주 한옥마을에 다온공예 매장을 통하여 직접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며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ECO융합연은 올해 11월 말에는 전주 한옥마을 다온공예 매장에서 토탈공예 3기 교육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육생의 협동 조합원으로 활동과 창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번 작품전시회를 발판으로 3기 토탈공예 교육생들도 협동조합을 통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취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융합연은 기본봉제교육 뿐 아니라 섬유봉제 관련 업체 견학프로그램과 취업, 창업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교육생에게는 교육용 재료 및 교재, 교통비 지급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2017년에도 섬유봉제 전문기능인력 양성과정과 토탈공예 교육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철규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섬유봉제 전문기능인력 교육 및 취업 연계 시스템을 지자체간 연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림 기자

다함께 열어나가는
음품도시 완주

쑥쑥 자라라, 완주의 꿈

군정슬로건, 3대 핵심정책으로 완주가 더 크게 도약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삶의 질 향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르네상스 완주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